

# 세계 선진농업과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의 미래



데스크칼럼

박간재

전남취재부장  
kanjae.park@jnilbo.com

전 세계 농업 강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등으로 세계시장이 연결되면서부터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인 농업이 데이터 혁신과 AI,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이 도입되면서 첨단산업으로 탈바꿈되는 형국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식량패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각국이 농업과 기술을 합친 '에그리테크(Agri Tech)'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 지역 농촌 풍경은 원시농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모내기 한달 전 모판을 만들어 법씨를 뿌리고 비닐을 씌운 뒤 본격 모내기를 시작했다. 눈에 물을 대고 나면 소가 끄는 쟁기로 썬레질을 했다. 모내기가 시작되면 집안 식솔들까지 동원됐다. 농번기철이면 '부지깽이도 춤춘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가용한 인력을 모두 끌어모았다. 못줄을 잡는 무명을 빼곤 모두가 눈에 들어가 모를 심어야 했다. 추수를 해도 투입 인력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당시 모든 부모들은 평생 땀과 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자식들을 길러냈다.

그렇던 농업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변화·발전해 왔을까. 세계 각국 농업 수준은 가히 상상을 뛰어 넘는다. 대표적인 나라 몇 곳을 살펴보자.

후주 축산기업 '윈디 스테이션' 목장은 군용자율주행 장갑차 등 700여가지 첨단기술을 활용해 소, 양목장을 운영한

다. 자율주행 장갑차는 미국 군사로봇 개발업체 HDT가 개발한 '올프'다. 울퉁불퉁한 목장내 지형을 넘어다니며 순찰하며 무거운 장비를 운반한다. 드론은 가축이동 경로와 목초지 분포를 확인한다. 센서로 물 수위와 강우량을 분석한다. 목장 규모도 넓다. 캔버라 동쪽 1만 5000ha로 여의도 면적 50배다. 정규 직원은 고작 4명이다.

미국 농기계 업체 존디어는 위성항법장치(GPS) 카메라 센서와 인공지능(AI)으로 결합한 무인 트랙터를 활용한다. 농부는 집안에서 무인 트랙터가 작업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면 된다. 눈발 비료는 스스로 알아서 뿌리는 로봇비료 살포기인 '이그젝트샷'이 대신한다.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씨앗이 심어진 곳을 식별한 뒤 정확한 위치에 비료를 뿌려준다. 이 장비를 활용하면 비료사용량의 60%가 절감된다.

아직 놀라기는 이른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가로지르는 니우어마스강에는 젓소를 키우는 수상목장 '플로팅(floating) 팜'이 있다. 가축을 사육할 토지가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강 위에서 소를 키워보자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있다.

3층에서 젓소를 키우고 2층에서는 착유한 우유를 보관한다. 1층은 치즈 숙성고로 쓴다. 2012년 실험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농장은 2019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료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 공급하고 기계로 배설물을 수거해 강의 오염을 막는다. 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플로팅 팜은 각종 농업 신기술의 결정체"라고 극찬하고 있다.

현재 선진 농업 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혁신의 모습이다. 코로나19와 국제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놓인 농산물이 가격급등을 겪으며 '제2의 석유'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만회하

기 위한 농업 강국 간 첨단기술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 농업 사례를 보면서 인력을 줄이고 기계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갈수록 고비용으로 몸살을 앓는 농촌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할 필요성은 있다. 배춧값이 폭락하면 그대로 놔둔 채 갈아엎거나 버값이 하락하면 쌓아놓고 불을 태웠던 아픈 과거가 있지 않겠는가.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온 농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이제 우리 농업에도 농작물 환경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분석해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 1년 농사를 짓고도 푼돈만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전남도가 전국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전남농촌융복합지원센터가 있다.

전남센터는 전국 11개 센터 중 3년 연속 종합1위에 올랐다. 성과평가와 인증경영체, 현장코칭 규모, 안테나숍 매출 등에서 타시도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인증경영체 역시 전국 최다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11곳에서 2021년 361곳, 지난해 403곳으로 29.6%가 늘었다. 현장코칭 규모 역시 514곳으로 전북 397곳을 크게 따돌렸다.

농촌융복합산업 업체들은 미래 전남 농업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담양 수복김산식 두리농원 대표, 보성 강선아 우리원 대표, 담양 박순애 담양한과 명진식품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송경환 순천대 교수가 이끄는 전남농촌융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농수산물 판로가 막혔을 때 숨통을 트여준 '전남도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전남 농업인들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社說

### 사회초년생 희망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

#### 전세사기 10개월간 2895명 검거

경찰이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3000명을 붙잡았다고 한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20~30대가 태반이었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온 청년세대에게 전세사기는 '가혹한 형벌'이다. 일벌백계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을 때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월까지 1차 특별단속을 마친 뒤 활동을 연장해 2차 특별단속에 돌입, 954명을 추가로 붙잡아 120명을 구속했다. 불법감정 행위가 의심되는 45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 3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겹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경찰은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했다. 피해자를 극단선택으로 몰아간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세사기는 서민을 고통의 늪에 빠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겹투자'와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 행위', '강동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등이었다고 한다. 모두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온 사회초년생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계 기관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거된 사기범을 엄벌하는 등 법적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야말로 정부에 주어진 역할이면서 의무다.

### 6만명 줄어든 지역아동, 태평할 때 아니다

#### 중소기업은 육아휴직도 못 써

디스토피아 영화 같은 내용이 현실로 돼가고 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 말이다. 지난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 지역 아동기 양육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1일 기준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광주 23만 3000명, 전남 24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 15.8%, 전남 14.0%였다. 6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각각 5만 9000명, 5만 7000명씩 감소했다. 비율로는 광주 -3.7%p, 전남 -3.0%p 하락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통계수치에서 1%는 상당한 숫자다. 그런데 무려 3%의 변동이다.

2021년 양부모가구의 맞벌이가구 비율은 광주 72.5%, 전남 67.4%를 차지했는데, 6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각각 8.4%p, 9.5%p나 늘어났다. 아이가 부모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육

아휴직률은 어떨까. 2021년 상시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률은 광주 10.0%, 전남 9.0%로 10명 중 1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률을 분석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이자 아버지의 육아휴직률은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어머니의 육아휴직률 역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았지만, 광주는 대기업조차 2015년에 비해 어머니의 육아휴직률이 감소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중소기업일수록 아이와 같이 보낼 시간이 더욱 짧고, 그런 환경에 처한 젊은 층들이 아예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 무슨 참혹한 현실인가. 어느 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수천 만원을 지급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집을 주기도 한다는 대한민국은 있는 육아휴직도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책정된 천문학적인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라 망하는 거 별거 아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망한 것이다. 언제까지 태평하게 팔짱만 끼고 있을 텐가.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 서석대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의 첫 고객은 대구의 상인이었다. 장사차 서울을 찾은 그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했다. 어렵게 은행을 찾아 대출을 부탁했지만 이번에는 담보로 맡길 것이 없었다. 결국 타고 온 당나귀를 담보로 잡았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담보로 잡은 당나귀를 '업무용'으로 타고 다녔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송금 사건도 있었다. 1900년대 초 한 외국인이 30달러를 환전하고 지방으로 송금을 요청했다. 30달러를 한

은 2001년 한국주택은행과 통합하면서 kb국민은행이 됐다. 제대로 이름이 남은 곳이 단 하나가 없을 정도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광주은행은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방은행 설립 지시에 따라 1968년 출범한 뒤 10년만인 1978년 자본금이 112배 늘어났다. 1997년에는 총자산 7조 원, 임직원만 2100명에 달했다. '2004년 세계 200대 은행으로 진입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되는 아픔을 겪고 2014년에는 전북은행의 지주회사인 JB금융지주에 합병됐다.

광주은행이 '미래 100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기로 했다. 주제는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 100년 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 아이디어 등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변화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진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또한 변화하지 않으면 낙오된다. 당나귀부터 어처구니없는 송금요청까지 지금의 은행은 변화와 혁신, 도전과 응전, 온갖 시행착오가 만들어 낸 자랑스런 결과다. '100년 은행'을 꿈꾸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좇겠다는 광주은행의 도전이 기대된다.

이용한 논설실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